

1. 완주군 여건



완주군 여건

1. 교통, 물류 요충지
2. 전북경계의 중심지
3.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수도
4. 생태 관광, 휴양, 녹색 전원도시

1. 완주군 여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고민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 활력있는 도농 혼주 산업도시 완주
- 위기의 농업·농촌 지역

| | |
|--|----------------------------|
| ➔ 인구 90,377명(14. 12기준) | ➔ 1ha 미만 소농 6,200농가(72.8%) |
| ➔ 첨단과학단지, 전북GRDP 17% 기여하기 좋은도시 1위(산자부) | ➔ 65세이상 고령농 36.5% |
| | ➔ 고령화, 인구감소, 공동체 붕괴 |

1. 완주군 여건 (위기의 대한민국 농촌)

1. 농촌의 위기
 - 인구 30% 농업에 종사, 1ha 미만 소농 70%
 - 농촌경제의 위기 : 고령화, 인구감소, 소농몰락, 활력 저하
 - 공동체 해체 : 마을공동체 붕괴, 자립적 발전역량 부족
 - 출산율 1.91명, 고령화율 18.56%
2. 현실적 처방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회복이 답!**
3. 핵심과제
 - 지역자원 재발견과 통합적 지역경영
 -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조
 - 주민을 핵심동력으로 하는 **상향식** 경영



2. 완주의 전략 (생각과 발상의 전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

1. 지역자원 재발견과 통합적인 지역경영의 관점
2.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조의 관점
3. 주민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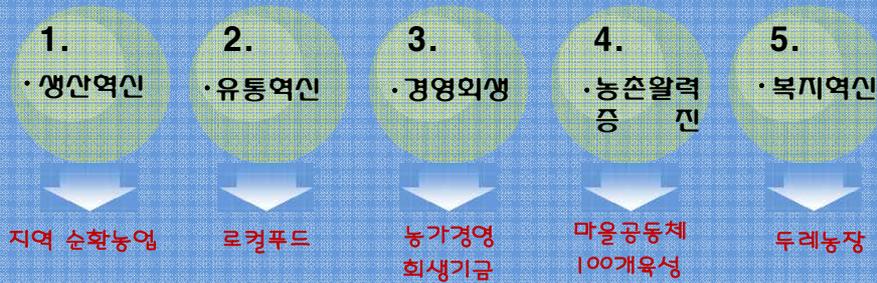
↓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접목

2. 완주의 전략 (농업농촌 중장기전략 수립)

약속(Promise)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추진

- 5대 정책과제, 12개 농정혁신 시책 추진
- 2009년부터 시책 추진을 위한 군 예산 증액 편성(연간 100억)
- 지방자치단체 농가 생산단체 협력 추진체계 강화



2. 완주의 전략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 수립)



- 30년 뒤에도 유지 가능한 마을공동체 100개소 육성
- 단계적 육성, 다양한 마을자원 상품화, 도농교류 거점
-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육성
- 지역문제 해결과 일자리가 융합된 주민조직 육성
- 지역을 함께 만들 인적자원 유치, 도농 직접 교류
-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얼굴있는 머거리 생산과 관계형 시장, 직거래 유통
- 지역 소농·고령농 3,000농가 월 100만원 소득 보장

2. 완주의 전략 (신택리지 사업 추진)

첫 시작, 지역자산 기초조사 '新 택리지 사업'

기존의 연역적 지역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를 기초로 귀납적 조사방법론을 도입해 미래의 시각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

- 마을평가 : 482개 마을 중 291개 행정리 조사
 - ➔ 역사축, 공간축, 자연축, 활동축으로 구분해 A~E까지 평가, 등급결정
- 자원평가 : 445개 자원 도출
 - ➔ 자원종류 : 자연생태, 역사문화, 경제, 공동체, 인적자원
 - ➔ 평가기준 : 기능성, 경관성, 자연성, 사회성, 정신성

2. 완주의 전략 (조직정비, 주민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조례 제정
- 농촌활력과 신설(2010. 7월)
 - ➔ 마을회사 육성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 로컬푸드 : 소농, 고령농 얼굴있는 먹거리 유통
 - ➔ 도농순환 : 농촌 내 귀농귀촌 사업 포괄적 지원
 - ➔ 지역일자리 : 지역내 일자리 창업, 연계창업 지원
 - ➔ 커뮤니티비즈니스 : 지역공동체 창업, 공동체 비즈니스 확대
 - ➔ 전문계약직 채용 → 지역경제 순환센터 배치
주민 밀착형 중간지원

2. 완주의 전략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

- ➔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화센터
- ➔ 전입계약직,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민간 전문가 10여명 상근
- ➔ 강의실, 세미나실, 카페, 전시시설을 갖춘 복합 지역 커뮤니티 공간

농촌활력 저하의 대명사인 폐교를 농촌활력의 요람으로!



2. 완주의 전략 (주민역량 강화)

- 신규 마을 공동체

- ➔ 주민 워크숍, 합동 통합교육, 선진지 견학, 주민 현장교육

- 기존 마을 공동체

- ➔ 운영 실무과정, 주민 현장교육, 농어촌 현장포럼, 부서장 멘토제 운영

- 주민 해외연수

- ➔ 2008년부터 300여명(리더, 사무장 및 주민)
- ➔ 2011년부터 300여명(생산농가, 작목반)



2. 완주의 전략 (①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

- 단계별, 수준별 마을 종합육성 체계화

➔ 발굴→기반구축→육성→자립의 단계별 종합 육성 시스템 구축

➔ 행정+전문가+지역주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2. 완주의 전략 (② 지역공동체 회사 육성)

- 주민 공동체가 새로운 공공을 만드는 지역공동체

- 좀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지역 창업 공동체 기업 육성

➔ 지역창업 공동체 :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사업



2. 완주의 전략 (③ 완주군 두레농장)

- 농촌 고령 노인의 소득·일자리·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시책
 - ➔ 2009년 시작(100% 군비) : 개소당 2억 지원(조성비 75%, 운영비 25%)
 - ➔ 2015년 10개소 운영, 30여종 농산물 생산·판매, 135명 어르신 일자리



- 완주군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사업 최우수 기관표창(대통령)

2. 완주의 전략 (③ 완주군 두레농장)

농촌 노인과 귀농자들이 만났다 일 자리를 만들고 함께 행복하다

완주군의 창조적 협력 모델 '두레농장'

전북 완주군은 2012년 기준으로 총인구 8만 8101명 중 노인 인구가 1만5859명이었다. 젊은 이는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전형적인 농촌 초고령 사회의 모습이었다. 2013년에만 630 여세대 2000여명이 귀촌했지만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완주군은 농촌의 노인들과 귀농 귀촌자들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 '두레 농장'을 만들어서 생산적 복지, 창조적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두레농장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농업 생산시설(두레농장)에서 농촌의 노인과 귀농자가 함께 짓는 친환경농사의 모델이며 지역사회 노인, 귀농귀촌자, 지자체가 협력해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이다.

부서(완주군청 농촌협력과), 로컬푸드 사업단, 귀농귀촌협의회, 두레농장 네트워크 사업단 등 4개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완주군은 두레농장 조성, 도시민 유치 지원 등 두레농장의 근간이 되는 행정지원을 전담하고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두레농장의 소비중심의 로컬푸드형 작부체계 수립 및 유통을 지원한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 상담 및 '귀농인의 집'을 운영, 귀농귀촌자가 두레농장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레농장 네트워크 사업단은 관내 두레농장 10개소에 대한 개별 경영현황 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해 경영 개선사항을 집중 관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레농장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 12월 기준으로 완주군 일대 두레농장 10개소에서는 총 136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6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참여 노인 1인당 월 42만원의 수익을 올



지역사회 노인, 귀농귀촌자, 지자체가 협력해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인 완주 두레 농장에서 노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랐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인복지분야 복지행정상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완주 두레농장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 두레농장 사업의 주역인 노인 또는 귀농귀촌자들을 단순히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호혜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즉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회 노임을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것이다. 두레농장은 현재 1차 농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산물 가공 분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체험 전문 비남하우스를 운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팜투어,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등 본격적인 3차 체험관광 사업을 받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차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고부가가치의 2차, 3차 산업으로 확대해가면서 6차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객원기

2. 완주의 전략 (④ 완주 로컬푸드)

농업과 밥상을 연결하는 협동경제 모델

- 65만 전주소비자와 완주군 소농, 고령농, 가족농을 연결하는 정책

- ➔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 직거래 유통
- ➔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 소농, 고령농 중심 1,500 농가 참여
- ➔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 10여개 품목 구성, 가정까지 택배 서비스
- ➔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점농민 가공센터 운영 : 26개 공동체 120 품목 생산
- ➔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 시행 : 10가지 원칙 준수, 지속적 품질관리
- ➔ 생산자, 소비자의 소통 : 로컬푸드 팸투어 연중 시행



2. 완주의 전략 (④ 완주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 로컬푸드 1일 유통 직매장 4개소 운영

- ➔ 당일수확, 당일판매 원칙, 가격도 농가가 직접 결정
- ➔ 완주군 마을사업, 두레농장, 공동체 사업의 판로확보로 자립화 추진
- ➔ 소농, 고령농, 가족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공동체 가공상품 판매
- ➔ 1일평균 1,000여명 방문, 개소당 1일평균 매출액 2천만원
- ➔ 2014년 4개 직매장 통해 271억원 매출



용진 농협(2012. 4. 27) 전주 효자점(2012.10.31) 모악산(2013. 7. 27) 전주 하가점(2014. 1. 29)

3. 조성사례 (마을공동체 회사)

1. 안덕 힐링마을(대한민국 1호 마을회사)



3. 조성사례 (마을공동체 회사)

2. 서계마을 부스개



3. 조성사례 (마을공동체 회사)

3. 용진 도계마을 김치공장



3. 조성사례 (지역공동체)

1. 마더쿠키



2. 이웃 린



3. 조성사례 (지역 공동체)

3. 완두콩(주민 소식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완주 마을이야기 완두콩

【 완주 마을이야기 완두콩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고자 출발했습니다. 】

완두콩은 이웃들의 사소한 이야기나 지역공동체를 담아 귀농귀촌인, 마을사무장, 초보엄마, 전직 언론인, 지역을 고민하는 젊은 단편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꽃도, 강아지도, 마을도 모두 완두콩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혀 참된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완두콩이 나누고 싶은 작은 이야기가 보이시나요?
 참 시시하죠?
 하지만 이것이 행복한 완두콩입니다.



3. 조성사례 (두 레 농 장)

1. 인덕 두레농장(참나물)



2. 돈의 두레농장(한우)



3. 조성사례 (두 레 농 장)

3. 평치 두레농장(토마토, 수박)



4. 약암 두레농장(표고)



3. 조성사례 (로 컬 푸 드)

1. 용진농협 직매장



3. 조성사례 (로컬푸드)

2. 효자동 직매장



3. 조성사례 (로컬푸드)

3. 하가지구 직매장



3. 조성사례 (로컬푸드)

4. 구이 로컬푸드 직매장



3. 조성사례 (농가 레스토랑)

1. 아하라(폐교 활용)



3. 조성사례 (농 가 레스토랑)

2. 새참수레(65세 이상 어르신)



3. 조성사례 (농 가 레스토랑)

3. 비비정(일제 급수탑)



3. 조성사례 (농 가 레스토랑)

4. 구이 농가레스토랑(로컬푸드 직매장 2층)



3. 조성사례 (주민주도 문화예술)

1. 고산 창포 다듬이 할머니 공연단(평균연령 75세)



3. 조성사례 (주민주도 문화예술)

2. 완주 풍류학교(임등창+지역주민 콜라보)



3. 조성사례 (주민주도 문화예술)

3. 삼례 문화예술촌



3. 조성사례 (협 동 조 합)

1. 고산미소(전라북도 1호 한우 협동조합)



감사합니다